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淸浦內閣의 出現

閉幕前의 一喜劇

一

再次의 大命降下에 依하야 淸浦子는 遂히 內閣組織을 着手케 되얏다 한다 그러나 該內閣의 前途는 아즉도 알 수 업다 勿論 今般의 日本政變은 日本有史以來의 大變動임으로 時局의 重大를 標榜하야 淸浦內閣의 組織을 出現케 한 바어니와 貴衆兩院에 아무런 政黨의 基礎가 업는 淸浦內閣이 今後 엇더케 그 前途의 難關을 突破케 할는지는 頗히 疑問될 바이다 方今 貴族院內의 最大多數黨인 硏究會를 中心으로 하야 各派의 聯立內閣을 劃策하고 또 一方으로 衆議院內의 政友會를 向하야 各種의 諒解를 求한다 하나 이와 가튼 劃策이 그 豫期의 成功을 收하리라고는 容易히 想像치 못할 것이다

二

卽 淸浦內閣은 第一着으로 貴衆兩院의 各政黨에 對한 對策의 如何로 그 基盤의 破綻을 告할 것이오 또 둘재는 該內閣의 色彩가 너무나 貴族院的 色彩에 濃厚한 것도 重大한 弱點일 것이다 萬一 時局의 重大를 標榜하야 擧國一致의 內閣을 夢想할진대 도로혀 貴衆兩院의 各政黨을 網羅하는 것이 安當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到底히 말과 가치 實現할 수가 업는 것은 明瞭한 事實이다 況 政治的 意味에 잇서 第二次的인 貴族院을 背景으로 하야 內閣을 組織한다는 것은 日本憲政의 一大逆轉이라고 斷言치 안할 수 업다 그러면 淸浦內閣의 出現은 어느 點으로 보든지 그 將來가 보잘것이 업다 다만 一例의 不敬事件을 動機로 하야 日本政界와 一般思潮界가 今後 一層의 反動的 色彩를 씌이게 될 目下의 趨勢가 이와 가튼 變態的 畸形兒를 產出케 하얏슬 뿐이다

三

그러나 日本政界의 近十有餘年에 亘하야 그 大體의 變遷을 觀察하건대 今日 淸浦內閣의 出現이 또한 多少의 意義가 不無하다 卽 大正元年의 桂太郞內閣을 一時期로 하야 憲政擁護의 소리와 閥族政治의 打破가 드듸여 大隈內閣과 原敬內閣의 出現을 展開케 하얏고 그 後 時局은 또 다시 反動的으로 加藤山本의 兩超然內閣을 成立케 한 것이엇다 다시 말하면 大隈와 原敬의 兩內閣은 日本憲政의 一時期를 劃하얏스나 政黨政治의 基礎를 確立치 못하고 中途에 挫折한 結果가 加藤山本의 兩超然內閣을 出現케 한 것이다 그러나 原敬內閣以前의 超然內閣과 原敬內閣以後의 超然內閣은 그 性質上으로 보아 重大한 差異가 不無하다 卽 原敬內閣以前의 超然內閣에 對한 政黨의 地位는 被動的이엇고 原敬內閣以後의 政黨은 主動的이엇다

四

이와 가치 閥族政治에서 政黨政治로 進行하는 日本政界의 大勢는 山本內閣의 出現이 그 超然內閣의 最後形式이라고 觀察케 되얏든 것이다 卽 山本內閣은 同時에 또 그 自體가 超然內閣을 倒壞케 하는 內部的 矛盾을 가지게 되얏다 다시 말하면 山本內閣의 存在는 唯一의 要素인 其 超然內閣은 自滅을 爲하야 그 最後의 吊鐘을 告한 關이 有하얏다 그러나 時局은 또 다시 意外의 序幕을 開하야 今日에 淸浦內閣의 惡戲가 出現케 하얏다 이것이 閉幕前의 一喜劇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나 이 意外의 延長은 唯一의 要求는 면 齊選卽施의 期待는 合理化 하는 案이 엿다 이러하야 超然內閣이 어느 때든지 닥칠는지 그 끗을 爲하야 [illegible]

獨憲法改正을 要求

巴威政府對獨逸首相通牒

「바바리아」政府는 獨逸宰相「맑스」氏에게 通牒을 送하야 獨逸憲法을 改正하야 各州에 再次獨立을 與하며 또 各州로 하여금 獨逸의 國務特히 外交問題에 充分干與케 할 것을 要求하엿더라 (伯林五日發)

比律賓問題討議

結局自治殖民地說有力

比律賓의 地位를 如何히 할는지는 目下 米國議會의 大問題로 盛히 議論되야 各種의 案이 提出되엿스나 其中에는 比律賓을 自治殖民地로 하야 加奈陀와 갓치 하자는 案이 最히 有力하다더라 (華盛頓三日發)

移民範圍又縮少

米國新移民法案의 內容

新移民法案은 各國移民數를 千八百九十年에 米國內에 居住한 各國民人數의 百分의 二로 限定코자 하는 바로 現行法에 依하면 千九百十年에 米國에 居住한 各國民人口의 百分之三의 移民이 許諾되얏는데 新移民法으로 因하야 最히 大한 影響을 바들 者는 南部歐羅巴諸國인 바 右諸國의 千八百九十年 當時의 米國在住民의 人口는 千九百十年에 比하야 大端히 적은 것이 理由이다 勞働聯盟「테비스」氏는 米國의 經濟的 必要를 特히 考慮하야 出港地에서 移民의 選定을 行하고 또 米國法에 依하야 米國市民權을 獲得치 못하는 移民은 全部 出帆前에 阻止할 事를 主張한다더라 (華盛頓二日發)

英內閣不信任乎

自由勞働兩黨이 聯合하야

英國의 現內閣은 來八日에 開會할 議會에서 自由黨及勞働黨聯合의 不信任決議를 受할 것은 無疑한 形勢이요 保守黨의 一部와 自由黨이 接近에 努力中인 듯하나 其成功은 疑問이오 尙히 自由貿易及失業問題에 關하야 大略步調를 同히 하던 自由勞働兩黨의 提携가 可能할 듯한 바 特히 勞働黨首領「막도날드」氏가 舊自由黨員으로 잇던 關係上 舊自由黨員 中으로부터 任意로 閣員을 採擇할지도 모른다고 看做하는 中이더라 (倫敦二日發)

印度自治頗有望

國民議會長모하메다리氏陳述

印度國民議會는 三日에 開會하엿는바 此議會에서는 殖產獎勵를 爲하야「카달」이라는 布木을 全國에 亘하야 一般에 使用케 하기를 目的하야 委員을 任命하기로 決議하얏스며 또 在外印度人의 困難한 境遇는 印度가 自治를 得하기까지는 解決이 不可能하다는 事項을 決議하엿는데 議長「모하메 다리」氏는 議會閉會에 際하야 本年中 印度의 自治를 獲得할 可望이 잇다고 述하얏더라 (코코나다三日發)

外交團空氣의 硬化

土匪의 盲敎師殺害問題로

湖北土匪에게 人質로 잡혓든 白耳義宣敎師男女二名은 重傷을 當하엿슴으로 外交團은 驚愕中이며 又白耳義宣敎師 가 水南에서 殺害되엿스며 宜陽丸事件이 아직 解決되지 못하야 拘禁者는 그냥 잡혀 잇슴으로 外交部는 秘書를 重慶에 特派하엿는데 此等事件으로 外交國의 空氣는 甚히 險惡한 模樣이더라 (北京四日發)

國境防備益嚴重

張氏對吳司令以下訓電內容

張總司令은 國境赤軍의 橫暴取締及防備에는 極力銳意하는 中이나 去月來부터 彼等의 驕慢이 益々激烈하다는 各地의 飛電이 有함으로 今回 左와 如한 電報를 吳司令, 朱護路司令 等에게 打電하엿더라 (奉天六日發)

一、赤軍이 我國境을 犯하는 者가 有하면 一應嚴重한 交涉을 試한 後 交涉이 功을 奏치 안는 境遇에는 積極的 態度에 出하여도 無妨함

二、國內에 在한 露國人의 無職業 又는 赤化宣傳에 從事하는 者는 一齊히 逮捕하야 國外에 放逐할 事

廣東政府의 新計劃

孫氏를 大總統으로 北伐을 斷行

廣東政府는 四日 國民要會議를 開하고 建國政府創立을 決議한 結果 孫文氏를 臨時大總統으로 選擧하야 統治權을 與하기로 決定하얏스며 同時에 奉天張作霖, 浙江盧永祥과 聯合하야 北伐을 斷行할 터이라더라 (廣東五日發)

西藏에 排英騷動

親英派와 排英派의 衝突

西藏에 잇는 英國派의 新黨과 反英國派의 舊黨과의 擾亂勃發의 形勢가 有하야 反英感情이 濃厚하야 多數의 舊黨員은 作群하야 不穩의 擧動을 行한지라 英國은 此事件을 憂慮하야「룬단」地方에 增兵하얏는 바 活佛은 舊黨에 加擔하얏스며 鎭守使 沈棟蔭은 仲裁의 告示를 하얏는 바 形勢重大로 觀한 政府는 特使를 派遣하얏더라 (北京五日發)

日本警察撤退交涉

米國公使는 五日 外交部에 對하야 本國政府로부터 無電問題가 契約과 가치 進捗되얏슴으로 感謝하다는 電報가 잇섯슴을 傳하는 同時에 日本公使에게 對하야 靑島警察署의 撤廢를 速히 하라고 再次督促을 하얏더라 (北京電)

閣員候補又變更

既히 決定되얏다 傳하던 淸浦內閣의 閣員中에는 各種의 事情에 依하야 五日午後에 至하야 突然히 變動이 生한지라 各種으로 調停한 結果 大略 左와 如히 決定되얏다 하더라 (東京電六日午前一時半着)

外務 一時首相兼攝 (石井駐佛大使에게 交涉)
農商務 藤村義朗男
文部 前田利定子
陸軍 宇垣現次官昇任
海軍 村上格一大將

變更의 原因 = 難產

이 淸浦內閣이 僅々成立하라 할 際에 又復 問題가 急變하얏스니 卽 江木千之翁의 文部大臣候補에 關하야 硏究會의 某幹部는 曰『彼는 淸浦子에게 硏究會에도 承認을 得한 것이 아니오 硏究會에도 確定的은 아니엿는데 大木伯이 確定的이라 하야 四日夜 江木君에게 가서 文相으로 入閣하라 交涉하며 江木君은 此를 承諾하고 五日 淸浦子와 會見키 爲하야 自動車까지 注文하고 官邸로부터의 電話를 待하던터인데 然而 正式으로 閣員을 決定키 爲하야 我等이 淸浦子와 會見한즉 同子는 江木君의 入閣에 難色이 有함으로 玆에 大問題가 起하얏스며 大木君은 既히 江木君에게 正式交涉을 하야 其承諾을 得하얏던 關係上 如何히 結末을 지을는지 未知이며 水野子가 西園寺公에게 政況을 報告키 爲하[illegible]

六日中에는 確定 = 人選困難

選困難中인 淸浦內閣의 文部、外務、陸軍、海軍의 四大臣에 就하야는 六日中에 全部의 決定을 行한 後 昨七日 親任式을 行할 豫定이엇스나 海軍은 目下 鎌倉에 靜養中인 村上格一大將으로 大略 決定한 바 上橋一大將은 六日中에 淸浦子와 會見하고 [illegible]

閣員全部決定

七日午前親任式擧行

淸浦內閣은 左와 如히 閣員이 決定되야 七日午前中 親任式을 擧行하리라더라 (東京至急電)

內閣總理大臣	子爵	淸浦奎吾
外務大臣	子爵	石井菊次郎
內務大臣		水野鍊太郎 (目下交涉中)
陸軍大臣		宇垣一成
海軍大臣		村上格一
遞信大臣	男爵	藤村義朗
大藏大臣		勝田主計
農商務大臣	子爵	前田利定
司法大臣		鈴木喜三郎
文部大臣		江木千之
鐵道大臣		小松謙次郎

淸浦內閣의 政綱

淸浦內閣의 政綱은 如左하리라더라 (東京午後零時發)

一、總選擧의 公正
一、思想의 善導
一、危險思想의 取締
一、農村의 振興
一、外交의 振作
一、帝都復興의 進捗

右 諸中 第一은 淸浦內閣出現의 根本問題인즉 無論 此를 高唱할 터이요 第二도 此를 强硬히 訓示할 터이요 [illegible]

社稷洞人에게

自由鐘 投稿歡迎 投稿規定 一行十四字詰 二十行以內에 限함 紙上匿名은 無妨하나 本社에는 氏名、住所를 記入할 事

◇社稷洞人! 그대는 鄕處女의 任意結婚인지 自由結婚인지 或은 淫奔事件이라 할는지 아무러한지 常規를 버서난 行動에 對하야 日常々하다 日是認한다 하야 쟈못 讃歎의 辭를 發하도다
◇閨中의 處女가 洞里의 靑年과 相思의 情을 맺는 것이 所謂 淫奔과 무엇이 다르냐 父母가 子女의 婚嫁에 對하야 全然히 子女의 意見을 無視한다는 것은 그러하나 稱讃할 수 업는 일이다
◇더구나 이 鄕處女의 行動에 對하야는 그와 가치 旣成한 行動을 取하지 아니할지라도 달은 方法이 잇슬 것이 아닌가 아모리 父母가 頑固하다 할지라도 죽기로써 [illegible]

◇東亞漫畫 投稿歡迎 「에구 목말너」 海州 宋 [illegible]

無理한 錦路競賣所

◇正直으로는 商業을 못하는 京城錦路各競賣所에서는 物件을 살 때가 [illegible]

法制局長官

松本氏就任拒絶

淸浦內閣實現과 勞働總同盟의 態度

急進愛國黨

淸浦內閣成立反對

高橋政友總裁

決心如何

專賣局에서는

新年度부터 葉煙草를 大規模로 製造

樞府議長後任

副議長乘擲乎

內閣更迭實施와 各地長官移動如何

重大事件과 臨時閣議

北滿同胞將來

悲觀할 것은 업다 (續)

橫說竪說

◇淸浦內閣은 畸形이나마, 順產을 할 듯하다더니, 昨日의 東電을 보면, 목아지만 나오고 수이 潤經이다, 後產까지 無事할는지 疑問
◇日本의 「愛國者」는 社會主義者의 遺骨을 뺏아서 가드니, 朝鮮의 警察官은, 禁治產者의 先祖位牌까지, 差押을 한다고
◇東京에 發生한 事實로, 又復 掲載禁止가 一件
◇昨年 一月부터 十一月까지, 伯林市中에서 주려 죽은 幼兒가 百三名, 悲慘의 程度를 可想

米國와서

張德秀

三十六.

桑港서「포-트랜드」를 가라면 最大急行으로 一晝夜半이 걸립니다 그런데 桑港은 南쪽 캘리포니아州에 잇고 「포-트랜드」는 北쪽「오레곤」州에 잇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州는 太平洋沿線을 南北으로 直接하야 뇌인 所謂 米國「패시픽·코-스트」의 兩大州입니다 이 兩大州의 兩大都市라는 것보다는 兩大港口를 連結하는 所謂 샤스타線이라는 鐵道는 우리 나라로 노코 말하면 白頭山脈이 江原道로 떠러저 金剛山의 泰山峻嶺이 된 것 가치 米國의 東西兩大山脈이라 하면 依例히 엄지손가락으로 꼽고 드러가는 西部의 록키山脈이 오레곤州에 똑 떠러저서 海岸을 直線으로 다라난 [illegible]

新着船來스켓트!
定價 京城府 二光堂

學生界 朝鮮學生會 新年特大號

創作 思想 人生戀愛觀 朝鮮文士印象記 男女各中學校長印象記 現代社會批判 映畫劇과 男女兩性問題 女性美禮讚 滙城圖書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소방대출초식광경 (작일아츰대한문압헤서)

五日午后七時朝鮮人이 二重橋前에 爆彈投擲

폭탄은 터지지안코 범인은 현장에서 톄포
련루자는 업고 범인은 모처에서 드러온듯

內務省公表

오일오후 일곱시 조선사람 한명이 동경궁성 이중교 밧게서 배회하는것을 보고 경관이 수상히 녁여 누구냐고 무른즉 그자는 폭발탄 가튼것을 가젓다가 집어던젓스나 폭발은 되지아니하얏고 범인은 즉시 경관과 보초병의게 톄포되야 일비곡(日比谷)경찰서로 압송하야 엄중히 심문중인데 별로 련루자는 업는듯하고 이러한 행동을한 목뎍은 아마 다만 세상을 소동케하랴는 것인듯하며 또 이범인은 최근 모처로부터 들어 온것인듯하더라 (동경지급뎐)

이사건은 그외에도 동경으로부터 도착한 뎐보가잇스나 경무당국으로부터 게재금지의 명령이 잇슴으로 다만 이상의 내무성 공표만 게재함

人力車夫의團結

소위지도자에게속지마라

◇경성시내에잇는인력거 쓰는사람 륙백여명이 한덩어리가되야 서로붓들고 서로도읍자는뜻으로 「조선로동친목회」란 긔관을 만들라 한다는 소문이 잇다

◇경제뎍생활이 비교뎍넉넉한사람은 단결할필요를 그다지 늣기지 아니하는 대신에 경제뎍으로 약한사람은 단결의 힘으로나 의지를삼을수밧게 업다함은 근래의현저한추세이다 서로서로 의지하야 살기위하야 한덩이가된다함은 가장자연스러운일이오 맛당히 하여야될 것이다 그러나우리는종래의 경험에의하야 우리사회에완전한단결이 업슴을 슯퍼할수밧게업다

◇똑가치가련한처디에잇는사람들이 모히어서 서로서로도읍고 서로서로잘 살고자하는모임이 될진대 오래지탕하게될 지못하고 쌔여지거나 흐지부지하게됨 은무슨싸닭일가 우리는 이에서 소위 지도자의 무성의와 회원간의 권리다툼 이라는 추한내면을 발견할수가잇섯다

◇인력거쓰는사람 그네들도 그네들의잘살기를위하야 한덩이가되겟다 함은 매우깃븐소식이오 그네들의소위지도자(인력거쓸지안는사람)라는 사람들이 부대 리해를위하야 축수한다 그러나 간부가되는명목을가진사람의순실(純實)치못한행동에속지말고 그네들의리해를위하야 돌진하기를바란다

鷄龍山記 (四)

粟飯生活하는 可憐한少年

살기가좃타니가왓다고 소년의우스며하는대답

이튼날아츰에 나는 그중흔은 시험언등근 이집이 근삼이되며 한번더가보앗다 간밤에큰비가온싸닭이다 가본즉 굴뚝에서가느단 아츰연긔 나오는집이 더러잇섯다 버가자가는 집에서는 연긔는아니 나오는데

부엌문으로 들여다본즉 열대사살된 다홍치마닙은커녀가 김이무럭무럭나는 밥솟헤서 누른 조밥을푸고 그것헤는 열두어살되는 사내아해가 쪼구리고안저서 부엌비로 부엌바닥을 쓸고잇다 어둠침침한광선속에서 어린 오누이의 얼굴이 분명히 보인다 커녀는 조밥을 사발에 떠서 소반에 올려노러니 그 소반을 들고 안으로 드러가는데 소반에 밥그릇이 노힌것을보니 아마 그어머니는 업고 아버지와 자긔네들만인 모양이다 그어머니는 죽엇는가 죽엇스면 무슨병으로 무덤은 어듼가 모든것이 남의일 갓지를아니하엿다 커녀가 밥상을들고 나간뒤에 사내아희가 나를 힐끗한번보고는 거적매어달앗든 거적문을 나리운다 나는 그집에 차자들어가 그어려운 생활을 알아야 기쉽것마는 도로혀 그것이 그로인하 부끄러울뿐이 업서 그만두고 그래도 참아 그집을 떠나지못하야 그압흐로 오락가락하엿다 집웅은 언제이엇든지 솔닙사귀 섞거 쥐로 아리커럭 흙은가리워노왓다 이때에 엇던 얌전한 열두어살되여보이는 아희가 두루마기도입고 모자업는 학도모자를 쓰고 나오기로 나는 그아희를 붓들엇다

「당신도 시험교요?」한즉 「비」하고 그사랑스러운 눈으로 의심스러운드시 나를 치어다본다

「학교에 다니오?」

「비」

「아버지 계시오?」

「비」

「아버지께서는 무엇을하시오」

「교회일보다가 지금그만두고 집에계서요」

「황해도서왓소?」

「비 재령서왓소와요 온지사년되엇소와요」

「웨 계룡산으로 오셧소?」한즉 「몰라요 살기가조타니 왓습지요」 이것은 아마 계룡산에 온사람의 공통한 대답인 모양이다 나는 그소년의 억개를 만지며 「정도령이 어듸잇답듸가」한즉 그는 더욱 우스며 「몰라요」 한즉 그는 또 우스며 「사람들의 말에는 정도령이 언제 나온대요?」 한즉 그는 「정도령이 나온다고들 그런지오」한다 「정도령이 어듸 잇기는 잇나요?」한즉 그소년은 「잇겟서요 다들 잇다고들 그러지오」한다 여간 령리하지아니한 소년이다

중늙은이 「이집아희들도 학교에 다니나요」한즉 「이권에는 다녓는데 지금은 월사금을 못내서 못댕겨요」 「월사금이 얼만데?」 「한달에 넉량―사십전이야요」한다 그소년의 집은 좀 넉넉한 모양이다

自己犧牲에 同情

살겟다안살겟다하는생각 자긔를희생함에더욱동경

離婚問題의可否 (七)

崔麟氏談

리혼은 도저히 하지못할것인줄 압니다 그아사람과 커다와시대를 싸라 다각기의의견이 다를터이지요 만은 자긔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도저히 리혼은못할것인가 합니다 목하조선에서는 녀개 남자는 리혼을하자는 편이되고 녀자는 소박을맛고라도 그래도 그남편의안해라는 일홈아래에서 평생을맛초으랴고 노심을하는것이올시다 남자된사람은 「나는나의행복을위하야 너를리혼할수밧게업다」하는 것이며 그상대편이되는녀자는 「나는나의희생이되드라도 너를위하야 내가희생이되겟다」 「나는죽드라도 너의게 배어서 살기를원한다」 이야말로 참으로 조선에서라야 볼 진긔한 현상이나 「자긔의행복을위하야 남을희생을하겟다」는사람과 「너를위하야 내가희생이되겟다」하는사람의 우열과 가부를 무르면 아모라도 남을위하야 내가희생되겟다는데에 만흔동정과 찬조를 앗기지안을가 합니다 즉 죽어도 함께살겟다하는 안해를 엇지참아 바리겟습닛가

편에서는 「나는죽드라도 너의게배어서 살기를원한다」 이야말로 참으로 조선에서라야 어대볼진긔한 현상이나 도 드르니 「자긔의행복을위하야 남을희생을 하겟다」는 사람과

새를쏘려다가 人에게放銃

다행이적게부상

부외두도면자마장리(森島面麻田里)에사는손재호(孫在浩)는재작일오후세시경에사냥총을 가지고 그부근에 돌아다니면서 새를잡으려고하다가 그곳서두도리(西頭島里)삼백구십사번디에 사는우편배달부리유한(李庸漢)(三一)을그릇쏘앗는데다행이크게 상치는아니하고오른쪽다리의살만 조금상하얏는데 즉시 춘천부 의원에서치료를바든뒤에자긔집 으로돌아갓다는바 전치되기까지 는일주일가량걸리리라더라

所謂官公吏가 妓生家에서大格鬪

순사, 형사, 군속, 기부가

금월삼일 오후일곱시 숨하야 개성서본뎡 버로동에서 순사 군속 기부(妓夫)등이 뒤범벅이되여 싸홈이 이러낫섯다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개성군텽에 근무하는군속 리대현(李大鉉)과 개성경찰서순사 지명산(池命山) 두사람이 술이취한후 서본뎡어느기생의집을 차가서 기생이잇느냐업느냐하고 한참말성을 하는듯헤 그기생의집에 먼저가잇든 개성경찰서형사 최현택(崔鉉澤) 기부 권용락(權容洛)등과 싸홈이되여 순사지명산은 대검(帶劍)을 빼앗기고 도망하는지음에 군속리대현은 형사최현택 기부권용락등의게 매를맛고 겨우 인력거에 의지하야 집으로 도라갓다는바 리대현은 전신에 타박상(打撲傷)을 당하야 일주일동안 의사의 치료를 밧게되얏슴으로 즉시 고소 진단서를 바다가지고 고소를 뎨긔하리라더라 (개성)

金東吉氏拘引

의렬단사건관계인가?

서대문 종로경찰서에서는 의렬단원의 일단이 조선과 중국간에 대규모의 군자금모집을 하다가 톄포되야 목하 취조중인 일파는 다만 조선뿐아니라 일본 동경에까지 련락이잇서서 무서운 음모와 군자금모집을 단행하고자 하든것인것은 사실이라더라 김동길(金東吉)씨를 구금하얏다는데 그사건의 내용은 여러가지로 비밀에 붓치나 보도할자유가 업스나

血汗엉키인雇錢을 日人什長이橫領

털원수리공사 인부이백여명의 삭전칠백원을 십당이횡령도주

강원도 털원군북면회산리(北面回山里)에사는 리락서(李樂西)외아홉명은 그곳 철도털원군북면회산리의 수리공사에 종사하던 이백여명의 조선인로동자를 대표하야 경성 철원경찰서에 본뎡경찰서에 온 바 그들의 말을 드르면 자긔들은 일인 십장의 밋헤서 삭전을 밧지못하고 그십당은 칠백오십원의 돈을 가지고 도망하얏스나 아모도 돌보는이 업슴으로 각처로 다니며 호소하엿스나 경찰서에서도 아직 조사중이라는데 부득이 본뎡경찰서에 온것이라더라

平北碧潼郡에 獨立軍出沒無常

압록강에어름이언후로는 평북벽동군에독립군출몰

국경디방중에도 바로 압록강과 다수한 독립군이 오북면 광평리 사이를문 평안북도벽동군(平北碧潼郡)등디에 들어와서 디방에는 국외에잇는조선독립집단에들어다니며 군자금을 징수하는 일이 만흔데 이는 압록강이 얼어붓기 까닭에 그곳인심이 매우 흉흉하여졋더라

世界唯一의女大臣

새로이러나는토이기공화국과 세상에처음되는녀자문부대신

넓은세계에 오죽하나인 녀자문부대신(女子文部大臣)을소개하면 세상이다아는바와가치 근동(近東)에잇는 토이기(土耳其)라는나라는 일시에 악수하야 봄이러나듯이 러나는새 토이기의공장한 긔세는바야흐로 세계주목의 대상이되는바 현재 『케말파샤』가대통령으로잇는 아나라가 극도로 짓치엇더니 근일 에이르러 군주권에의 악정과 민의 타락과 쓸데업는 전쟁으로 계에 유명한 강국이엇스나 근세 이기(土耳其)라는 나라는 일시 문부대신이잇스니 세계에 려사 에이르러 『하눔양(孃)』이라는 녀자문부 는 일터위인『케말파샤』가 나라 가잇슨후로 처음되는 녀자문부

◇토이기문부대신 『하눔』양◇

南滿獨立團統一

동의부와의군부가서로악수 남만주일대의동포는다안심

모방면으로 전하는소식에 의지하건대 남만주(南滿洲)에잇는 독립운동(獨立運動)하는단체에는 통의부(統義府)와 의군부(義軍府)가 잇서서 서로 딴 길로 나아가며 간혹 충돌도 잇섯스나 이번에 두단톄가 서로 악수하고 합동하기로 되얏슴으로 남만주일대에 잇는 동포들은 모다 환영한다더라

京城消防出初式

작일아츰대한문압헤서

년년히 행하는 경성상비소방대(京城常備消防隊)의 출초식(出初式)은 작일 오전아홉시경에 대한문(大漢門)압헤서 거행하얏는데 시내 각 경찰서장과 다수한 내빈이 참석하엿스며 사다리 타는 긔술과 맛챔부리 오 쏘는것을 시연하고 소방대원들 에게 상을 주엇다 오정이 되어서 산회하얏더라

큰화재나 난듯이 핑핑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다니드라

炭坑瓦斯爆發 百餘名이生死不明

일본북해도공지군에서

오일오전열시반북해도공디군(北海道空知郡)의 신사(新夕張)탄갱안에 있는 데사항뎨사번항(第四坑十番坑)에서 와사(瓦斯)가 폭발되야 그곳에서 일하든 백여명의 생사를 모르게되얏는데 구조에 착수하얏스나 아즉 알수업다더라

死者六十

사십오명은부상

그곳에잇든 역원이하 일백여명의 생사를 모르게되얏는데 즉시결사대를조직하야 구조에착수한결과 그날 오후세시까지 역원세명과 광부아홉명의 죽엄을 발견하얏스나 그남아지는 아직생사를 알지못하며 방금계속하야 구조중이라더라 (찰황뎐보)

북해도탄항에서『까스』가폭발되야 일백여명의 사람이 파뭇치엇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제별보에의지하건대 그중 마흔다섯명은 무사하고 아홉명의 시테도 발견하얏는데 남아지 륙십이명은 아마도 죽은모양이라더라

『愛』創刊號押收

데이집은금원중순발행

시내관훈동(寬勳洞)일백삼십번디에잇는애사(愛社)에서는문예잡지로『애(愛)』란잡지를발행하게되여 그뎨일집(第一輯)을지난일일에 발행하엿든바 그사에서 즉일안수가 되엿는데 당국에 그사에서는 더욱용긔를 도도아 금월중순경에 데이집을 발행하리라더라

一圓어치火災

재작일오후여섯시 삼십분경에 시내련지동(蓮池洞)이백삼십오번디양평창(楊平昌)의 집에서 불이 나서 즉시 써버렷는데 원인은 그집아해 가초불을 켜들고 변소에 갓다가 그가치 실화된것이라는데 손해는 단일원이라고

苦學生에 五圓寄附

공신계에서

시내가회동(嘉會洞)륙십번디공신계(共信契)에서는 동대문밧신

不平

投稿歡迎 不平은 實例에 限함

보히지안습닛가

진고개를 지나라면 군데군데 선거지들이 치워에 떨고 안저서 푼지만 압수업는 비명을 부르지 안코 소리치며 밥 세우니 그뿐이 아참 아사람의 눈으로 대할 수 잇겟슴닛가 보키경찰서 당국자의 눈에는 도모지 보히지도 안습니가 (一郵生)

허는수업소이다

보지못합리다 잇습니가 보기는 남보다더 잘히뭇지 모르나 도모지 그들은 구제할 방색이 업습니다 소국뎍처단으로는 내모는 길밧게 그리하면 시내각처에서 서로쫏차내게되니 결국그들은 각곳에 조차 업시되게 만되는 것이오 경찰서나 경성부에는 아즉 그 사람들을 위하야 지출할예산이 업스니 별로 방안이 생기기까지는 하는수 업습니다 (본뎡경찰서당국자의 말)

◇휴지통

▲개성에서는 군속 기부와 형사 순사가 기생집에서 한바탕큰싸홈이 이러낫다고 ▲아모리 정초에 한잔먹은 김이라지마는 허구만흔곳에 가서 집에 가서 데격투를 하엿다는 것은 과히칭찬할일은못된다 ▲그더 치만 순사의 칼이 쓸데업다는 의론이 세상에 헌자한이 때에 칼을 떼여바리고 다라난것은 시대사조를 아는 한귀특한 행동이라할는지 ▲도당국이나 군당국에서 양장을 한다고 ▲생나무를 노나주고 생나무는 심으거나 말거나 생나무갑만 ▲동리로 퍼물리드 일은 벌서 몃해전일인데 ▲근일 또 전라남도보성군 모면장은 생나무대금이라고 각동리에게 물리다가 동리백성에게 큰코를 떼여다고 그런일은 발서 호령이 당나먹든 쌔의일이다

特價四圓三十錢 德國製의 十三形 八日卷 時計 大元堂時計舖

牛島名產 海州墨 本人이 海州墨製造 ... 翰林風月 一丁 八拾錢 芙蓉賞蓮 一丁 參拾錢 大吉堂 一丁 參拾錢 百川淸風 一丁 四拾錢 翠城香煙 一丁 四拾錢 六角塔 一丁 參拾錢 首陽月梅 一丁 貳拾錢 海州製墨所

上等毛布 半價處分

新柄特大判 一枚掛 半毛製大判 一枚續 改良茶色大判 一枚續 改良白色大判 一枚續 別上赤色大判 一枚續 本毛茶大判 一枚續

年久積滯神藥 治積腦痛丸 壽山藥房

資本金參千萬圓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二丁目 頭取 有賀光豊

理髮機械 和洋金物 理髮器具付屬品 西洋面刀 理髮用鋏 吉川金物支店

賀買易 高等靴 東明商會 商標 東

特價提供 獨乙製 四圓五十錢 米國製 四圓九十錢

山口樂器店

外科皮膚科專門 大東醫院 院長 千葉醫學士 李潤載

大陸고무 京城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社長 李夏榮

學生時計 特價十四圓也 信鍾堂時計店

積殖金產 支店及派出所

ClibPDF - www.fastio.com

大邱令市繁昌
百一稅도本商負擔

全國에有名한大邱令市는旣히本報에屢次報道한바어니와這間令市振興會와漢藥組合의非常한活動으로預定한計劃과宣言대로客商에게便利하도록令市의繁昌에對한諸般施設을着々進行하야食價店賃等의減下裝飾設備의完全함이令市面目을一新케하야나날이增加하는商賈와物品은雲集山積의盛況을이루며問題中이든藥品賣買에對한百一稅도盡力交涉한結果全部當地本商이負擔키로去十二月二十七日에確定되야外來客商은勿論이요令市振興上一般이讚賀不已한다더라(大邱)

都堂會의蹶起
敎會事實誤報로

旣報한바와如히平壤司倉洞耶蘇敎會의牧師李仁植氏가西洋宣敎師를排斥하고新敎會를設立한다는新聞記事가每日申報에揭載됨에對하야同敎會諸職의憤慨함은勿論이어니와此는司倉洞一敎會만의問題가아니라平壤城內長老敎會全體에關한重大한問題라하야去四日午後七時平壤基督敎靑年會館內에서平壤市內長老派耶蘇敎會諸氏全部를網羅한都堂會를開催하고善後策을協議하얏는데爲先金東元 尹聖運兩氏를委員으로選定하야此全然無根의說이如何한經路를밟아每日申報에揭載되얏는지그事由를調査하기로하고十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平壤)

昨年平壤貿易
總計一千萬圓

大正十二年中平壤貿易總額은如左

輸出
外國輸出 一、六四七、一五九圓
日本移出 二六〇、三二二
合計 一、九〇七、四七一

輸入
外國輸入 四、〇〇九、四三九
日本移入 四、〇九七、一四七
合計 八、一〇六、五八六

總合計 一〇、〇一四、〇五七

此總合計를大正十一年에比較하면九十萬圓可量이減少된모양이더라(平壤)

新延人士熱誠 載寧郡

南栗面新延里에서는敎育機關이無하야一般이遺憾으로思하던바同里有志羅相稷蔣孝敏安東郁金東俊諸氏의熱心周旋의結果七百餘圓의經費로新昌學院이라는私塾을設立하고一般子弟를敎育하다는데現在通學生이七十餘名에達한다하며去月부터前記校舍內에서女子夜學을開始하고金成寬孃金濟奎氏가朝鮮語日語算術漢文等科目을義務敎授한다는데此夜學에對하야隣洞人士中에서出捐한金額도不少하다더라(載寧)

順天勞働巡劇 全南順天

郡順天面勞働大會內勞働夜學會에서는無產靑年과普通學校에도通學치못하는貧民階級의子弟敎育費에充當하기爲하야演劇團을組織하야順天魚市場에서興行하엿다함은일이本報에報道한바어니와全南各郡을巡廻興行할次로去月三十日에同一行은麗水郡을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順天)

再次農村講演 咸南端

川郡福貴面에서는過般郡農業技手李晟煥氏가農業講習의用務를帶하고當地에出張함을機會로하야私立普仁學校內에서講演會를開催하고沈弘澤氏司會下에演士李晟煥氏는『農村改良策에對하야』란題로約四時間餘이나熱辯을吐하야大盛況을이루엇다고(端川)

平壤商議延期 平壤商

業會議所에서는旣報한바와如히去四日臨時評議員會를開催하고會頭選擧를行할豫定이엇스나그間에奧田內田兩派의暗中競爭이激烈하고또한一部에서는松井民治郞氏를會頭로推薦하자는論議가有하야臨時評議員會는無期延期가되얏다더라(平壤)

魯山勞働夜學 統營郡

光道面魯山里에서는該面長金采鎬氏의熱心斡旋으로勞働夜學講習會를組織하고里民間有志의出資로校舍外지建築하야去年末頃부터勞働夜學을開始하얏는대발서講習生이四十餘名에達하얏스며科程은朝鮮語,日本語,美術等으로하고講師朴振鐸金大植兩氏는無料로써熱心敎授한다는바該夜學講會의前途가有望하다더라(統營)

長明學院發展 長白縣

邑中心으로한長白府의長明學院은設立된以來로四面八方으로雲集하는學生이日로加하고月로增하야當地學界의新紀元을作하는同時에該學院의管理者인朴基瑚崔泰京兩氏는誠心으로心力을竭하야風雪을不憚하고專力함으로當地一般人士는앞으로더욱發展에努力을加하리라고稱頌이藉々하다더라(長白)

紐峴驛의業績 紐峴驛

客月業績은乘車人三萬八百七人降車人四萬一千三百六十一人入驛人三千四十二人發送小荷物五萬四千四十七斤到着五萬八千四百六十七斤發送貨物四百十八噸到着七百二十九噸으로收入은客車에二萬七千六百十七圓貨車에一千九百四十五圓雜收入五百八十八圓計三萬百五十四圓이라더라(仁川)

南浦客主總會 鎭南浦

物產客主組合에서는去三日에下半期總會를同組合事務所에開催하고會錄朗讀과決算報告가잇슨後任員을改選하얏는데組合長에莊元鎔副組合長에崔正鉉兩氏가當選되고更히穀物賣買契約及同組合事務所를稅關으로移轉新築等의件에對하야協議하고穀物賣買契約의件에關하야는實行委員을選擇하야一任하기로하얏는데委員은林祺李洛麟兩氏가當選되엿더라(鎭南浦)

洪牧師中國行 旣報와

如히朝鮮耶蘇敎長老會總會의結議로選擇된中華民國山東省卽墨에서宣敎하든洪承漢宣敎師는其間安息年임으로故鄕되는宣川에와서一年間安息하고滿期가됨으로去四日下午二時四十三分特急車로家族一同을帶同하고中國卽墨을向하야出發하엿는데當日男女敎徒의多數送別이有하엿다더라(宣川)

新義州여起하라
新義州 一記者

새해를마즈며新義州兄弟姊妹의게한말로뭇노니우리에게무엇을자랑할것이잇는가國境의要塞가되며紳士淑女의來往이頻々할뿐만아니라朝鮮의關門이되여서엿지그다지活氣가업시쓸쓸하여外라안커보이는가勿論全民族이活氣가업는것은事實이나新義州는더욱그러하다다른地方에서는靑年會를組織하느니

中學期成 會를組織하느니産業機關을組織하느니하는데新義州人士는새로히무엇이든지設立함은姑舍하고已往부터잇는會外지消滅하엿다前에잇든地方會와靑年會와物産奬勵會는有耶無耶中에葬하고지금에그대들에게무엇이잇는가新義州야너는果然그럿지아니한가참果然마음이傷한다너의고을中에富豪가업지아니하며志士가업지아니하되新義州에서私立學校나마하나設立하엿는가네가開拓되여잇는지

十有餘年 에한일이무엇인가왜그다지敎育에對하야서도無理解하며自己民族將來에對한活動이업는가네가너의子弟에對한希望外지도그리薄弱한가實로한숨지고눈물을禁키어렵다또한新義州敎會로말하면무엇하나成就한일이잇는가敎會가設立되여잇는지十餘年에私立學校하나도업는것은무슨일인가이케敎會經營의新明義塾을보라學校도아니고私塾에不過하니우리는如斯한學을볼때에뜻잇는者야그누가또거운눈물을뿌리지아니할수잇스랴

그리하여도**新義州人** 은別로히이것을念慮하지안을뿐아니라生覺지도아니한다日後에너의歷史와抱負를나타내일機關이업스면新義州는永々滅亡할것이아닌가그대들이말로만學校를施設하지말고金錢과努力을出하여서速히相當한學校로變更하기를바란다實로社會에對한罪人이되지말고팔을것고余力을다하여勇氣잇게奮鬪하기를바란다諸君은目前의利害에만憧憬하지말고將來永遠한基礎를作할

新理想을 思索하여라自己背後에虛榮의光彩를裝飾코저하는것은더욱重한罪惡이다罪惡의報酬는滅亡이다엇지天의誅伐을免하리요覺醒하고새해부터는너의일홈新義州와가치새로운義州가되자

◇靑年其他集會◇

▲薩水俱樂部總會 安州薩水俱樂部에서는去三日에總會를開하고各部報告를終한後任員外지改選하엿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
一、新年부터諸般事務를大革新하기로함
一、從來會計는新任會計가引受하야一週內로明細表를作成配付키로함
一、會에使喚一名을置하야相當한報酬를給하고使用키로함(安州)

▲鐵原名刺交換會 江原道鐵原邑內에서는官民有志가모여서一月一日正午尋常小學校에서名刺交換會를開催(鐵原)

▲鐵原學友會新年祝賀 江原道鐵原學友會에서는一月一日下午七時에南監理敎會鐵原邑禮拜堂에모여서新年祝賀式을開催(鐵原)

▲東萊靑年定期總會 東萊靑年會에서는去三日正午에該會館內에서第五回定期總會를開하고諸般事項을決議하고幹部外지改選하엿더라(東萊)

▲勞働共濟委員會 大邱勞働共濟會에서는지난三日午前十時同會館內에서委員會를開하고來二十日에定期總會를開催할것과晋州勞働共濟會主催의十日부터三日間晋州에서開催하는農民代表懇談會에代表者鄭雲海氏를派遣하기로하는二件의決議를하얏더라(大邱)

▲彰義校童話會 高陽郡恩平面에잇는彰義女學校主催로今七日上午十一時부터恩平面新營里彰義學校內에서童話會를開催한다는데少年少女와兒童의母姉諸氏의多數參席하기를바란다고(高陽)

▲仁川中國敎會歌劇大會 今七日午後七時부터同敎會堂에서開催한다는데入場料는一圓과五十錢二種이며그收入으로同敎會舖[illegible]는다고(仁川)

▲報德社評議員會 唐津郡松嶽面에서共公事業으로隨時應用할目的으로十年前에集金團結된報德社는去二日同面事務所內에서評議員會를開催하고社長李奎宰氏司會下에利益配當及其他事項을決議한後其配當金一部로唐津消費組合에加入함이一般社員의有利한事임을附議한바滿場一致로可決하고午後八時頃에閉會하얏더라(唐津)

▲故金龍周君追悼會 鎭南浦外地留學生親友會에서는同會京城支部主催로故金龍周(京城醫專)君의追悼會와學生講演會를本月八日午後六時부터同地新興里禮拜堂에서開催하리라더라(鎭南浦)

▲錦山消防組出初式 全北錦山邑內錦山消防組에서는錦山警察署와聯合하야去四日午前十時錦山橋下에서消防競技가有한後午後二時頃錦山小學校에서祝賀式을擧行하고一同은防火宣傳書數千枚를市內에散布하며大々的으로宣傳하얏다더라(錦山)

▲咸安消防隊練習 慶南咸安郡에서는年來로正初에消防隊練習을하는바今年一月四日에는一層大規模로練習을行하엿더라(咸安)

許生傳 (37)
長白山人

삼변공관 (二)

하생원이 제주에 들어간지가 어언간 삼년이되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조선팔도에는큰변이 낫습니다 삼남에 삼년을연하야 흉년이들어 백성들은 모두굶은이를쓸고 어린것들을업고 황해도함경도로 구걸을떠나고 각처에산에는 산적 물에는수적으로 돈푼이나잇는 백성들도 맘노코살아갈수가업습니다 어쩌게는어느골원이 도적에게죽엇다 오늘은 어느감영에■한당이들어서 감사는뒤문으로빠저 도망을하엿다 지리산에는 최마모라는자가 도적멧천명을거느리고 웅거하엿다 변만에는 검모라는자가 웅거하여 이모양으로무서운소문이 봉화人불모양으로 하로에도 멧백리씩련해갑니다 조정에서는 리완이리대장으로 포도대장을삼아서 여러번 삼남으로 관병을나려보내엇스나 가는족々 슴어커버리고 도적의형세는 막을길이업섯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일낫다는 큰일이 아니외다이보다더큰일이잇습니다 장안에서는 자정이넘으면 사람들이 잠을일울수가 업다고함니다 어되서스르릉스르릉 쇠갈리는소리가 벼개맛흠 울리는外닭이외다 사람들은 모두 『이게글세웬일이어니하고눈을비비고 개들은방에대고자던 고개를들고 콩콩짓기를 시작합니다이것은 효종대왕께서 청국을들여치시고 태조대왕의 넷뜻을펴사랑으로 돈과무긔를 부어만드는소립니다

『란리가난다더라 호인이나온다더라』

『아니다호인이 나오는것이아니라 왜인이나온다더라』

『그것도아니다 왜인이나온것이아니라 조선서대국을 친다더라』

이러한소문이 조선팔도에 쫙하여서 시청에서나 농가에서나 커텨들을떠고 모허들 안즈면이런이야기뿐이엇습니다

『호인이나오거나 왜인이나오거나 곡조선人사람이 죽기는죽엇서』 하고 약한 소리를 하는이도잇고 약한 소리뿐이아니라 김훈산人골작으로 아희들을 실고피난을 가는이조차 잇섯습니다 엇잿스나 이뼈에조선팔도는 상차고꽃을지며울어오르라는물모양으로 솟밋헤서부터 우수수부글부글끌키시작하는것과가탓습니다 이것도 큰일은큰일이어니와 이보다도 더이상야릇한큰일이 생겻습니다 대체경향놉물론하고 총물이권혀 동이낫는데 감두한개 망건하나 처쌀한조각어더구경할수업서서조선팔도에 쇠리하나 온권히가진 말이업다십히 말총이란 말총은죄다쓸히고십지어 머리카락 바오락지까지풀어서 망건감두를 뜨는형편이라 말총한근에 은한근한다는 무서운 시세가 낫습니다이것은 웨이런고하니 원래 조선에서씨우는총불은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오는것인데 허생원이 제주도에들어간뒤로 삼년人동안을 말총장사들이 기만하고 팔지를아니한까닭입니다 허생이 제주에 나릴뼈에말이

『제주人말총을 삼년만무역을해싸하두면반다시섭갑절은남을것이오 조선팔도가 말총뼈문에 흔들리리라』하더니 참으로그말이마젓습니다 말총을 실은배가 조선어느포구에 들어오기가무섭게 말총장사들이 커마다남보다만히 사려고 머리악을쓰고덤비는데 부르는것이값이라 팔기시작한지 두달이못되여서 제주청중과 조선포구에 산人덤이가치차현든말총이 간데가업시다 팔리고 말총人덤이만한 돈人덤이만 싸히게되엿습니다 허생원은 제주청중에서 큰잔치를베풀고 닷세人동안을련하야 제주人백성들을 대접한후에 인케는자긔가 제주서할일이 뭇이낫스니 제주를 떠나야할것을 말하엿습니다 그러나제주人백성들은 모도눈물을흘리며

『아닌겨라아닌겨라 가맙거라』

『허생원님가시며는 또목사을겨시니 우리엇지 사는겨라오가말거라』

하고간편히 만류합니다 그러나 하생은그것도 다싸리치고 여권히써人국이 흐르는선비의 행색으로 조천을떠낫습니다 그는장차어되로 향하라는고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總히本欄으로써發表함
一、質疑는藥餌에限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함을要함

【問】一男子가寡婦를어더왓는데그女子는前죽은男便의民籍에서除籍되고다시改嫁한모양으로入籍하고살다가、半年後에그女子가逃亡하야于今十餘年에生死가不明할뿐아니라、그女子의親家住所도不明한故로차자볼수도업게되야는데다시장가를들어야할터이나、그女子가民籍에그냥잇고는새로어든女子를入籍식히수업스니엇지하면조흘릿가(府內昌信洞劉喜鈺)

【答】이것은正當한夫婦의關係로되얏슨즉、그저、한便意思로써除籍할수는업습니다、그러닛가所管裁判所에、離婚訴訟을提出하야離婚判決한뒤에再娶를하시오相對便이以今同居치아니한다하더라도、그理由를들어訴訟할수잇습니다(京城府民籍係長)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冊子는東亞日報社編輯局으로보내주시압

▲새人별(新年號)새해아츰、벌소래의어린솜내、詩集의죽엄、나무에오른아해、이상한나그내、문명한세상、정직한햇틔、서장군、우리비도새비、福男이와네동무、어룸판으로等其他多數한童話와童謠(開城松都面北本町五二〇其社發行五十錢)

金銀白

德力本店出張所

京城明治町 電本一五七二番 振替京城二三四番

消瘡紫金丹 各種梅毒

毒、下疳、橫痃、上下疳瘡、諸般瘡疾、無名惡瘡瘍에神效始初는十五日內에十五包를服用上記各症을拔根全快를擔保若奏效가無한時는藥價還給하기로保證하되久瘡者는年條를隨하야一二劑或二三劑或四五劑年久漏瘡은限十劑速服한後擔保하此一劑 定價金四圓 二十日分外에도官許藥品數十種이具備速々注文하심 各地方에서代金引換으로請求時에郵料四十錢을先送치아니시면拒絕함 拾年間經驗이有함으로保證함

九轉靈砂 製造藥房 京城府貫鐵洞七番地 主 李鎬廷

◇當一月六日(日曜)부터◇ 各國名畫特別大公開
⊙映畫界의稀有한最大長尺 松竹映畫
놓내지마시요 一萬二千呎
猛獸!大活劇 大冒險
決死의冒險
⊙生?死?鳥人?飛人? 最大長尺
⊙神出鬼沒의冒險大映畫
特約 團成社 電光 九五九

八種藥各專劑

本公司에서現時勢로左記八種藥品을特材로準備하고低廉한打算價格으로全鮮服藥家에大割引酬應하오니速々注文하심을要함
但注文時氏名下의捺印無印無效

六味湯 特劑 二圓八十錢
八味湯 特劑 三圓十錢
倍四物湯 特劑 一圓十錢
雙和湯 特劑 一圓十錢
大補湯 特劑 二圓八十錢
水土湯 特劑 二圓九十錢
種玉湯 特劑 四圓
六味丸 特劑 三圓五十錢

大東藥業公司 京城寬勳洞五十一番地 調劑製藥專門 振替京城一二六九三

哲魂朴埈杓著 全一冊·四六版·三百五十頁 ▲定價金壹圓參拾錢 ●送料十六錢

現代靑年修養讀本

△現代靑年修養의寶鑑!!現代靑年思想의指針!!

靑年時代의修養

●靑年諸君아!諸君은諸君의時代를아는가?熱血兒아!
▲全一冊美裝▲ 定價金五拾錢 ▲書留郵稅九錢

發行所
永昌書館 京城府鍾路三丁目八五 振替京城六二二一番
韓興書林 京城府鳳翼洞五五의六 振替京城六〇一七九番

內職 三圓卅錢

京城自動車講習所

創作集 永遠의夢想
春城 盧子泳作

젊은이들에게보내는 아름다운선물!

남보다만흔설음과눈물을가진、多情多限한作者가人生을의심하고、世上을저주하며、그무삼뭇피는未知의나라를차자보려고、永遠한夢想에헤매인、새빨간魂의우름이니、全篇을通하야젊은이들의가삼을태우고야말、煩悶의불꼿과、사랑의甘酒가달대로타고、찰대로찻다。피잇고눈물잇는、現代靑年이거든한번보라

洋裝極美本 頁數二百六十페지 一部 定價 壹圓 書留送料 十二錢

‖內容一般‖
無限愛의魂
永遠의咀呪
鐵瓮城에서
白華江의月夜
放浪의夏路
漂泊의兄에게 「시베리아」에서放浪하는兄의게、모든서름과압흠을呼訴하는感想文
半月城가든길에
愛人의게주는詩六編

總發賣所 京城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新編朝鮮歷史 (全)
普成高等普通學校敎諭 黃義敦先生著
定價壹圓 (送料十一錢)

入學試驗에合格하는秘訣

入學試驗叢書第一編 定價壹圓 送料十一錢
官公立高等普通學校 師範學校 私立各種實業學校 入學試驗準備書

入學試驗叢書第二編 定價壹圓 送料十一錢
中等學校 地理歷史 入學準備書

入學試驗叢書第三編 定價壹圓 送料十一錢
系統的分類的 算術入學準備書 一冊四十錢

入學試驗叢書第四編
系統的分類的 綴方入學準備書 一冊四十錢

入學試驗叢書第五編 國語模範準備書 定價六十錢 送料二錢
入學試驗叢書第六編 鮮語模範準備書 定價六十錢 送料二錢
入學試驗叢書第七編 地理模範準備書 定價六十錢 送料二錢
入學試驗叢書第八編 歷史模範準備書 定價六十錢 送料二錢

大正十二年度朝鮮內各學校 入學試驗問題模範解答 定價七十錢 送料四錢

發行及發賣所
以文堂 京城府寬勳洞一三〇 振替京城一〇二七五
槿花社 京城府慶雲洞一〇〇 振替京城八二七五
文化書館 京城府齋洞七五番地 振替京城一四四六番
廣韓書林 京城府堅志洞五一 振替京城九五四五番

ClibPDF - www.fastio.com

月曜欄

比律賓獨立運動의史的考察

東京에서 高永煥

讀者에게一言

이글은 九月一日以後即 當局의所謂朝鮮人에對한不祥事件이 한창猖獗時期에 『너는朝鮮놈이냐?……』라는罪名下에 七八日間私宅拘留를當하면서(그後 自願치도안는것을 强制的으로『保護해준다』는美名下에 事實로拘留를밧든 二十餘日間먹엇지마는) 外닭업는恐怖와悲哀中에 一方으로는破寂하기爲하야 또他一方으로는 處地와事情이 우리와彷彿한 比島民族의現狀의萬一을 讀者諸賢의게紹介하기爲하야 한손으로는 근심을모르는悲淚를씨서가면서 또한손으로는記實하엿든바를 엇지로든고쓴것이외다。그러나 이것을쓴後거의二個月間이나 通信機關이杜絶되얏을뿐더러 그所謂開通된後에도 玄海灘에 무슨食紙鬼가잇는지? 單純한安否를通知하는書簡도 中間에洪喬之沈이非常히만흔外닭에 이것을付送하야發表할機會를 尙今것지못하다가 인제야겨우 보내려고 다시한번읽어보즉 文句의拙澁한곳이 一二處에근치지안코나, 이는余가元來拙文遲筆인데다가 더욱 이것을쓸쌔의心情은 非常한恐怖,悲哀,不安狀態에잇섯든故로ー卽그쌔의心理狀態를 꼭그대로描寫한다하면 只今쓰는이未熟한拙文이 아즉三十도못된나의 最後의絶筆이나 或되지안을가? 라고外지생각되리만콤 非常한不安狀態에잇섯든故로ー그다지無理한缺點이아닌듯하오니 그대로紹介하려하오니。이點에對하야讀者諸賢은特히 恕諒하시기를切望할뿐이외다。

다만 이機會에一言을添記할必要가잇다고생각하는것은、晩近新聞報道에依하면 比島獨立尙早論者의首魁인우ー드總督의排斥運動이 더熱烈하게된것과 其他附隨事件이더複雜化하여가는事實이외다。極히簡單하게具體的으로말하면 罷職當한一刑事를 總督의權限으로다시復職식힌것이 表面上의導火線이되야 도리간七月에爆發된 總督越權問題로 排斥運動을當하는우ー드將軍이『마닐나』鐵道會社의經營하는官線鐵道를『賣却』資本家의手中으로 廉格케하려다가失敗보고서 只今또經濟的으로比島民族을壓迫하려는奸策으로 比島民族全體의生命線이係在한 比律賓國民銀行을 閉鎖하려고全力을쓰는外닭에 可謂全島一致의『우ー드總督排斥運動』이 날로더激烈하며가는것과 比島上院議長이요아울러獨立運動의總大將이라할만한『퀘이손』氏의勢力內에잇는獨立派가『우ー드』總督의越權問題는 比律賓의死活問題이닛가 黨派의如何를不問하고 全國民的으로協力糾彈하자』는正當한主義下에서 民主黨의共同戰起를懇願하는提議에對하야些少한勢力問題로ー偏狹한黨派的感情에 刺戟된民主黨은 此를一切不應하고 도리혀不美한內訌만 더욱惹起하려고함으로、이弱點을잘看破한우ー드總督은 比島獨立運動에 可謂全權을쥔聯立派의勢力을 適時挫折식히려는『쿠데타』로 各省長官의椅子를 臨時로民主黨의게許與하는等 그暗中飛躍하는野卑手段이 日益非常한것도 歷史家나政治家의眼中에는 적지안케主觀的價値가잇는 한可觀的現象이외다。(十二月五日)

一、執筆의動機

月刊雜誌『植民』九月號를보다가 新井誠夫氏의『運命に弄ばる、比島獨立運動』이란論文을 읽게되얏다。그中에趣味잇는材料가不少하기로『抄譯』이라는形式으로飜譯하야보려는私心이 石火電光보담더쌔르게낫다。그러나事實로붓을들고原稿紙를對할쌔에는 到底히單純한『抄譯』만으로는 滿足할수업섯다。그럼으로더政治史其他外交書類等을若干參考하야가지고 다시붓을쥐든엇다。하닛가本論文이 新井氏의그것과는全然反對方向의思想을 表示하는點이許多할는지도알수업다。그런故로가장正直한態度로 適切하게말한다하면『抄譯』이라는名稱보담은『改作』에가가운變名이適當할는지도모르겟다。라는말은 이글을쓸쌔에 新井氏의論文中材料를 不少히盜用하엿다는것을 公言할義務가잇는外닭이다。一言으로外蔽之하면 新井氏의骨格에다 내의魂을집어너흔것이 이論文이다。千萬料表에 論文이反對方向으로利用된新井氏의게對하야는 아모리無恥한厚顏으로도 좀未安한생각이난다。하지만은 엇절수업다。나는그리하고십흔것가。

二、比律賓群島槪觀

米領比律賓은 支那의福建廣東兩省과 臺灣의南方에 南北으로길게散在한大小島嶼數百이 組成한群島이다。그西方으로는 佛領印度支那와相望하고 南面으로는『보르네오』群島와最近하게相對하며 東으로는 茫々한太平洋을새이두고 멀니米國을 怨視한다。가장簡單하게말하면 우리濟州島에서 南方으로約五六日航行하다가 臺灣을지나서 그다음에나타나는큰群島이다。그런데面積은約十一萬方哩이며 人口는一千萬以上이라한다。耕作地가七百五十萬『에이커ー』(一에이커ー는 約一千二百二十四坪)이나되는故로 現今의狀態로는 그農產物總額이無慮五億萬圓의巨額에達한다고한다。卽氣候가溫熱하며 土地가肥沃함으로 米產額이約二百萬圓 椰子實이約七千萬圓 砂糖이約七千萬圓 煙草가約一千七百萬圓ー여긔에는좀餘談갓다만은 數言의挿入할것이잇다。現今東西를조아가 偏嗜獨占하는『呂宋煙』이라는것은 本群島中呂宋島의特產物임으로 好事者가그렁케命名한것인듯하다。元來煙草라는것은 世人의熟知하는바와가치 커呂宋島의最初特產物이엿는데 約三百五十年前 西班牙人이 그島人의吸煙하는것을보고 一種의好奇心으로엣번吸煙해보다가 結局自己外지中毒된後 漸次로吸煙熱을世界에傳播하엿다고한다。그리하야우리나라에도 李朝仁宗時代부터輸入되엿다고한다。그럼으로 우리나라에서煙草를普通『南草』라고하는것도 다出處가잇는말이다ー其他數千萬圓의產物을 年々產出하는 豐富한產業地이다。좀더精巧한農業技術을應用할것갓흐면 훨신더產物을夥多케할수잇다고한다。

그러고人類學上으로보면 本島土着의住民은 亦是亞細亞種族에屬한것이라고한다。그런데 此島는距今三百餘年前에 西班牙人이 世界一週航行을計畫하는途中에 偶然히發見한後暴力的으로占領하야 西國의錯誤된植民政策下에 土人은 恐慌히呻吟하다가 一八九八年米西戰爭의結果로 그支配者가變更되야 只今은米國의統治下에서 姑息的生活을하게되엿다。西國支配下에三百三十年 米國支配下에二十餘年 이동안에比島人은 如何한運命을開拓하엿든가?

麼컨데 同島가土人의手中을써나서 白人의支配下에歸屬한지가 밧서三百有五十餘年이라 旣히一千萬을超過한民衆의게 엇지國民的自覺이업슬수잇슬가?近年에賴々히西洋의文物을輸入하는同島에도 向者世界大戰時에擡頭한『民族自決』의風潮는 一瀉千里의勢로侵入하야 獨立의氣運은次第로激昂하여가는現狀이다。아니 同島民이獨立의素志를抱懷한지는 발서오래前부터의일이다。卽西班牙支配時代부터 以來繼續해온長恨夢이다。吾人은『民族生存權』의大義에依하야 우리와處地가同一하며情狀이彷彿한ー換言하면우리와同感同情인比島民族이 하로라도速히所願成就하기를 滿腔의丹心으로誠祝한다。그러나 커詭辯政治家의모둠인米國政府는『比律賓의獨立運動은 土着民族의素願이아니라 實은日本人의敎唆에서出來한思想이라』는 似而非的理由下에 比島人의絶叫하는獨立喚呼를 如風過耳로 尋常히지내려고한다。그는마치 日本人이一九一九年에 우리民族의獨立運動을指示하야말하되『朝鮮의獨立運動은 朝鮮民族의徹底한自覺에서 發動된思想의表現이아니라 實은某國ー米國ー宣敎師輩의煽動에서基因한것이니不足可畏라』는等憶測邪說로써 內로는日本議會에서耳를痲痺식히며 外로는公明正大한世界의公眼을敢히掩蔽하려든口實과 酷似한對比가된다。只今吾人이 比島의獨立을贊成하며熱望하는것은 人類共存의大義에서나온人間本然性이다。그는마치一七七六年에 米國自體가英國의羈絆을脫離함과同樣인 自尊心의擁護에서出來한人間性이다。眞情으로米國이『眞實한自由와人類의平和』를建國以來의大精神으로삼고 堂々하게前進할良心의自覺이잇다하면 커比律賓가튼一島國을正當하게獨立식히는것은 至極히公平無私한國際的信義가아닌가?米國의現政治家諸賢이여!十九世紀以來世界를風靡식히든帝國主義的中毒에 良心이痲痺되지안햇거든 그至公無私한良心을 天下의耳目에披瀝公開할지어다。

三、西領에서米領에

比島民族의悠久한過去歷史는 歷史專攻家의詳細한講義에다조허委任하려니와 처음으로(西班牙의王命에依하야世界를一週하려고航行中인) 葡萄牙人『마젤난』의게發見되기는 一五二一年의事實인데『레가스피』가該時比律賓群島의鄰國인셔부王國을征服하야 이를完全히西班牙의植民地로占領하기는 實로一五六九年의掠掠이다 當時의西班牙는 有名한『펠닙푸』二世의治下에서 國威를世界에發揚하든黃金時代이다 『레가스피』의比島征服햇다는報告가 西班牙本國에到達함에『펠닙푸』二世는 即時『레가스피』를比律賓群島의太守로任命하고 그部下의게島內의土地를領與하게하엿다 이것이 比島가白人의支配를밧게된起源인데爾來西班牙의同島占領은一八九八年外지 三百三十年의長久한歲月이엿다 그러나그後西班牙人의比島에對한政治는『펠닙푸』二世의失墜後 本國々勢의衰頹함과가치 非常히失度하야 날로弊制虐政만增施할뿐이엿다 더욱히占領後바로渡來하야 島民의信仰에一大改革을行한耶蘇敎徒와의衝突은 一面으로國政을더욱困難케하는同時에 他方으로는僧侶의橫暴心을더욱增大케하야 政治의墮落과僧侶의跋扈를招致하엿다

그럼으로 太守의更迭이頻々相踵하야、約三百年間의統治에 一百十五人의太守를任命하게된것은 政治에一定한方針이업스며 何等의永久的施設을하지못하엿다는事實을 雄辯으로立證하는바이다 實로三百餘年間의弊政에 比島人의心情이얼마나 悲哀하엿슬가? 발서過去事이지마는 吾人은同情淚를禁할수업다 比島本土人인『마리아노 폰세』博士는『南洋의風雲』이라는著書中에

『西班牙人은吾人을 支配할에當하야 西班牙本國議會의議決에依하지안코 오즉當該官吏가任意로制定한特別法을使用하야 各種의口實下에서 苛斂誅求를일삼으며 또그不率하는不厭하는貪慾만充足하려고 吾人의身體와財產에對하야 無數한汚辱과蹂躪을加하며 吾人의權利를剝奪하며 吾人의言論을壓迫한다 吾人中에萬一吾人의權利를主張하며 그不法行爲를痛論하는사람이잇스면 반다시그를逮捕監禁하며 或은國外로放逐하며 又는銃殺의刑에處한다 그나마當該官吏가 如斯한重大事件을處理함에當하야도 決코一定한法律에準據치안코 全혀그專斷으로外한다……』

라고말하엿다 吾人은이記錄을볼때에 문득커 尖頭寺內總督時代의朝鮮을聯想하는 同時에 殆히 無意識的으로全身이戰慄하며 毛頭外지竦然하여짐을께닷게된다

第三者인吾人이 如斯한文書를通하야間接으로보는것과 當事者인比島人이 直接으로當하는것과의새이에는 勿論霄壤의懸隔이介在할것이라 그럼으로 比島人이實際로當하는悲哀와慘狀은 實로第三者의想像하는바보담은 훨신더苦痛되것지마는 그래도如斯한文字만보고라도 그弊政의萬一을足히推知할수잇다

그러나 風雲이一轉하야 一八九八年에『큐바』島獨立의援助問題로因하야 米西가干戈를相交하게됨애『쌈손』提督의引率한米國艦隊는 西班牙艦隊를『싼티아고』(『큐바』島南港)에封鎖하고서그艦隊의脫出逃走함을따라 擊破全滅식히고또陸軍도連戰連勝하야 豫想보담더쌔르게同島의征服을完成하엿다그와同時에米國大統領은當時香港에碇泊中인米國艦隊司令官『쭈에이』를命하야西班牙의太平洋艦隊를呂宋島『마닐나』港에서攻擊하야全滅식힌後 比律賓群島를全部占領하엿다 於是에西班牙는엇절수업시休戰講和를請한後 巴里條約에依하야 米國은西班牙로하야금『큐바』島獨立을承認케하는同時에『포토리코』及西印度의西領諸島를獲得하고 또二千萬弗의金額으로써 比律賓群島를全部買收하엿다 以上이極히簡單하나마 比島가三百餘年來의西班牙支配를脫出하야 다시米國의統治下에生活하게된經路이다(續)

홍가리아이야기

(世界語重譯) 上海 王宇

나는다만 우리어머니와『리진』만사랑하엿습니다 그外에는 이世上에 아모것도업엇습니다 나는 어머니와『리진』한가지자미나게 사랏습니다 그쌔에 나의어린누의동생은 목咽喉症으로고만이세상을떠낫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은 조용하게되엿습니다 우리집마부간근처에는 동내아희들이 써듭니다 그러나그아희들은우리집에는겨우발자취만 조곰되려노코 맘니다 마치언케外지던지무엇을 차조려는것처럼 아모정신업시컷 새벽부터 어둔방속外지 슬픈과운이充滿한방안 時計추가치쉬일새업시 무슨깁흔생각을하면서 엇지할줄모르고방황하는검정옷닙으신 우리어머니를 그아희들은청가시게하기를질겨하지아니하엿습니다

우리어머님은각금옷장을열고사람을차려로쌔임이다 그러고는 죽은누이동생의 所用하든 外套와 신발과치마를 손으로만지며 한참동안이나 멀거니 바라다보다는 가삼에다안고웁니다 그러고는 얼마잇다가는 그것들과작난감과 筆記冊그밧게 다른것들을 한가지면커커럼 도로사람에는음니다 나는각금이것을 보왓습니다 우리어머니는 나를도모지생각지안어줍니다 산사람을보다 죽은사람을 더생각합니다 나는너무나 슬어서 어느날하루는 어머니의옷을 잡어다니고그짤을 어루만졋습니다 그아우리어머니는 커녀우름으로疲困하여진 그눈을들어 물그럼이내아들아하는듯이나를내려다보엇습니다 그러고는『무엇을달내니?이녀석!』 버너에게 글을주라?』이러케말하엿습니다 그러면서 서랍을 열엇습니다 그안에는 만흔글들이 잇엇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마음대로골느라합니다 그러나 나는글은도모지顧치안엇습니다 다만 죽은어린누의 동생을 미워하엿습니다 (끗)

黃金쥐이약이

서서방의 새해를당하야 本月曜欄은 인케야讀者諸氏의 세배를들이게 되얏습니다남도다 하는수작이니、本欄도서서방 이야기나하나 하겟습니다

호랑이담배먹든 녯날은 아니나 녯날은 녯날일이외다 지금中國西蜀어느 고을에 우리나라에前觀察使가치 돈버리잘하는 太守가새로 到任하얏더랍니다 그래서어리석은 백청들은 뒷날을걱정하야 그太守양반의 生日에 큰잔채를 베풀어 대접을하얏더랍니다 太守는술잔이나 잘순김에한동안 흥뭇지게노시다가 여러가지맛난 飮食우에 黃金으로만든방정마진 쥐색기가 노힌것을보고 돈이라면 사족을바로못쓰는太守는 일변반가우나 너무도적은것이 화가나서『조게다무에야? 이왕만들러이면크게만들지안코』하고 한번호령을 나리엿습니다 그런즉 백성들은 황송무지하야『그런게아니라 이곳風俗은太守님의 生年을따라 子年이면 쥐,丑年이면소,寅年이면호랑이를 만들어옷는法이온데 太守님의 生年은子年이 되여서……』하고모다들 숭숭죽이고잇섯습니다 이말을들은 太守양반은 펄적이러나면서『커런! 한해만더 늣게생겻드라면……』하고 그다음丑年에 나서黃金소(牛)못가진것을 長歎息 하엿다는이야기외다 讀者諸氏는 쥐를원합니가? 소를원합니가?

誤解한想涉兄에게

『廢墟以後』의批評에對하야

春城

日前兄님을 面對하야 말삼드린바와가치 兄님의批評은 感謝히밧겟습니다 아우의作品에 對하야는 아모런말삼을하여도 고개를숙이고 『그럿습니다』하고 달게밧고커합니다 아모변명도 아모反言도 아니하고커합니다 다못兄님의 말삼을 달게밧을뿐이지오! 그러고將來에는 그가라치신말삼에 依하야 쓰고커하는作品에도 만흔參考가 되겟지오ㅣ 그러나『베르렌』의詩를 盜作하엿다는데에는到底히고개를숙일수가업소이다 그리고그裏面에는 참을수업는 鬱抑한內容이잇습니다 이社會가兄님이나아우나사는社會라면그抑鬱한事情도 눈물을삼키고 참아버리고시쉬럽게말삼아니하겟습니다 그러나이社會라는그러치아니한社會닛가 몃마듸그內容을 말하야兄님이나 또는一般文壇의 誤解를풀고커합니다

東亞日報月曜欄에『荇城』이라는일홈으로發表된『잠』이라는詩는事實 아우가쓴것이아닙니다 그리고아우가三年前東亞日報에『放浪의歿路』라고發表된紀行文에『베르렌』의詩라고번역한일이잇습니다 그런데그月曜欄에『잠』이라하고 發表된곳에는 우숩고도氣막히는 事實이잇습니다 月曜의 金某라는 일홈으로『베르렌』의그詩를『잠』이라 題目하고自己의 일홈으로 滔々히投稿하엿더이다 이에아우는그校正읽는 소래를듯고 그『잠』이라는詩는『베르렌』의詩로 金億君이 번역한일도잇고 아우(荇城)도 번역한일이 잇슨즉 그投稿者는남의詩를 도적한것이라고 말하엿습니다 그런데 月曜欄編輯者는編輯上 關係인지!그詩를 해지아니하고그만그『金某』라는일홈을지운후 아우도아지못하게『荇城』이라는일홈을너허엿더이다 그다음날 月曜欄을보즉 아우의일홈이써잇기로 아우는 놀나 버여訂正을하려고까지하엿습니다 그러나 두세줄밧게안되는 조그마한詩이오 또는訂正하기가 매우시쓰럽기에 그만두엇더니 말경은 兄이다 그커럼비평을하엿더이다 事實의 內容이이러하온속 事實그批評은 揚市公憤에잇는 金某가밧아야 할批評이외다 事實이 이러한外닭에 아우는良心上으로 아모붓그러움이업습니마는 이러한批評을 아우가밧게된것만 억울히생각하고 그事實의大槪를 一般文壇과 또는兄의게公式으로말씀드릴판이외다

德興商店洪原支店 都鎭寬

廉泰根洋靴店

共誠商店

朴景龍商店

北鮮物產商會

前津漁業組合

日新洋服店

育英學院

宋虎醫院

舒川西南面桂東里 全載誠

舒川邑內 池世雄

群山府榮町五五番地 李基永 楠泰日

群山府新榮町六十五番地 海產物商委託販賣業 共成商會 片炳完 片炳哲

群山府藏財洞百三番地 邊昌鎬

群山勞働共濟會

田範植

群山府全州通 材木商 李周奉

群山府榮町六五番地 金商一

群山新榮町 趙東鎬

沃溝郡臨陂面邑內里 李完植

群山榮町二百七番地 安永洙

群山府竹町五番地 竹城旅館 主 崔錫煥

群山府新榮町六五番地 海陸物產委託販賣 韓一商會 徐廷弼

群山榮町 [illegible]

群山府壽町五番地 [illegible]

群山府壽町九番地 朱洛潤

群山府新榮町六二 [illegible]商會

群山府壽町 金[illegible]

平壤 朴經錫

海州宗路[illegible] 朴元奎 長電話三百四番

京釜線平澤驛前通 米穀貿易商 李鍾勳

京釜線平澤驛前通 米穀商 李鍾善

京釜線平澤 東亞日報支局 支局長 金信敬 記者 李相駿 記者 李廷淵 記者 朴亨國

平北運轉手同志會 一同

釜山大廳町 釜山證券株式會社 電話六二五番

大邱府明治町二丁目 徐丙朝 電話七八一番

海州禁酒同盟會

咸平面玉山里 朴光奎

[illegible]郡獨山面 車弘均

江原道淮陽郡[illegible]北里 金剛事務所 姜成國

青松郡廳 職員一同

青松面事務所 職員一同

青松邑內 面長 權丙宣

青松郡廳 金相鉉

青松 申養善

青松邑內 尹商榮

青松巴川面[illegible]洞 沈雲燮

咸興東陽通 咸山旅館 電話三四九番

咸興慈惠醫院 職員一同

咸安金融組合

咸安郡農會

咸安郡畜產同業組合

咸安邑內 李圭鎬

咸安驛前 一東醫院 李澄浩

咸安驛前 (大)南鮮運送店

法守面長 李鉉喆

郡北市 咸安郡叺指定販賣所

宜寧邑內 雜貨布白商 都散賣商 神吉商店

宜寧邑內 救世醫院 公醫 高[illegible]

宜寧邑內 精米所 金[illegible]

宜寧邑內 綿絲布木棉商 金[illegible]

宜寧自動車部 洪[illegible]

宜寧邑內 沈相炎

宜寧邑內 菓子商 矢田商店

[illegible] 許南鉉

郡北驛前 (日)日鮮運送店

郡北公立普通學校 教員一同

咸安郡郡北面中岩里 趙鏞漢

平北義州南門外 西鮮印刷株式會社 電話九番 振替京城五九六八番

平北義州南門外 義信洋靴店 主 洪[illegible]

義州 和泉釀酒商會 電話三七番 振替京城八四三七番

義州 澤美自動車部 電話三十一番 主任 金弘潤 事務 李[illegible]

義州東部洞 禎山醫院 醫師 金志植

合名會社 鎭南浦廣濟社 義州出張所

義州南門外 廣濟醫院 醫師 李[illegible]

義州 天道敎宗理院

義州南門洞 張德允

義州南門洞 金柄華

義州 金基煥

義州 李民齊

義州郡州內面職員一同

義州南門洞 會昇館

義州東部洞 主 [illegible]

義州南門洞 義州藝妓券番

義州東部洞 [illegible]

安東縣六番通八丁目四番地 株式會社 圓光商會

安東縣六番通八丁目三番地 曾成號

安東縣 秦誠[illegible]院

安東縣朝鮮人會

安東縣 裕正號

安東縣 安興泰

安東縣市場通 金永徽

義州 金輝朝

義州 禹鍾喆

義州 尹甲善

義州 徐元善

洪城郡長谷面大谷里 李鍾呂

東亞日報社 靑陽分局

宜寧郡廳職員一同

宜寧郡廳製紙組合

宜寧郡農會

宜寧郡廳畜產同業組合

黃海道廳 高等官一同

新明公司